



여섯번째 이야기

'순종'으로 이룬 좋은사람

2017년 2월 2일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서 보기에도 아름다운 연인 '좋은 사람'과 비오는 수요일팀이 함께 했다. 다음 날, 일본 선교지로 출발을 앞둔 나문채, 주미경 선교사의 함박웃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만끽하는 부러운 웃음이었다.

인터뷰: 한숙영/ 정리: 이현숙/ 사진: 조정문/ 편집: 이경주

선교사로 인사드립니다



한: 두 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 선교사님은 우리 BEE 가족들이 잘 아는 분이시지만 우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나: 안녕하세요? 나문채 선교사입니다. 새삼 인사하려니 좀 막막한데요. 1985년이 제게는 큰 전환기입니다. 제 아내를 만났고 맘에 들어 결혼하자고 했더니 갑자기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고민 좀 했지요. 저희 집은 유교적이고 제사가 일 년에 10여 차례나 있는 집이었지만 '그럼 교회를 다녀볼게' 그랬지요. 7월 14일 만났는데 교회를 다니고 학습세례를 받고 8월에 프리포즈를 하고 추수감사절 주에 결혼을 했어요. 제

가 군대생활이나 은행에서 술을 좀 많이 마시는 그런 일이었는데 아내와의 만남은 그런 생활을 정리해 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1990년에 외환은행이 일본에서 프로젝트를 도입했는데, 일본에서 온 과장이 너무 영어를 못해서 제가 일본어를 배웠지요. 92년에 일본에 가서 3개월 간 어학연수를 하고 들어와 95년에 오사카에서 3년간 근무했는데, 그 때 일본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지요. 한 번은 일본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집사님의 집에 초대를 받아 방문했는데 집에 '가미다나'라는 신전이 있고 안방에는 불당이 있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후 일본에 근무하면서 일본 교회를 보면서 그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일본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곳이구나 생각했지요.

선교에로의 부르심



한: 세례는 받았지만 그래도 이 분이 나의 구주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있었나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다고 느껴지는 계기가 있었는지요?

나: 세례를 받았어도 확실히 와 닿는 것은 없었는데, 1999년에 전도폭발 1,2,3 단계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내게 오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지요. 그 때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눈물이 나 운전을 못 할 정도였어요. 참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2000년 계동지점장으로 있다가 본점 자산관리로 가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 때 아내의 기도와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에 있는 한 선교사님께 제가 앞으로 뭘 하면 되냐고 물어 보았는데, 신학교에 가라고 할 줄 알았던 그 분이 뜻밖에 BEE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주 후에 난데없이 성대풍 선교사께서 은행으로 오셨습니다. 당시 회계사로 일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던 그의 초대로 BEE를 2005년 말에 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정진희 권사님께 했는데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고, 그 후 로마서를 하면서 저한테는 차츰차츰 확실한 비전이 생겼습니다. 토요 기도모임에 참석했는데 김영숙 선교사님이 "아! 일본이시네요!" 하신 계기로 일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순종으로 가는 선교의 길

한: 주선교사님, 어떻게 믿지도 않는 사람을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요인이 있었나요?

주: 그 동안 주변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지향적이었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또, 같이 교회 가자고 권유 했을 때 받아준 것 등도 이유 중에 하나였지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딸의 남편을 골라 주시는데 최고로 제일 '좋은 사람'을 골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 그럼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셨나요?

주: 저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평양에 온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버님은 조만식 선생님의 비서도 하셨고, 예전에 서독 분데스리가 축구할 때 MBC 해설위원이기도 하셨는데, 자녀들의 결혼조건은 신앙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남편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했을 때의 첫 감정이 어떠셨나요?



나: 갑자기 말한 것이 아니라 BEE에 나가면서 일본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에서도 일본어 예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나선교사가 일본에 근무할 때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을 어떻게 쓸까요 하는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선교사로 간다는 것과는 괴리가 있었어요. 근무하는 학교에서 학원 선교를 오래 주관했었고, 차세대 목사님들과도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학원선교도 선교다'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결국은 남편이 가는 길에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게 되었어요. 나선교사가 아가서의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말씀 성구를 주었을 때 '남편이 이렇게 함께 가고 싶어 하는데 같이 가야지' 하고 순종했어요.

선교에의 비전과 계획

한 : 선교를 하면서 롤 모델이 있으신지요?

나 : 조문상선교사님이시죠. 선교현장에서 그 분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바울 같습니다. 꾸밈이 없이 그들과 생활하고 행하면서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면 전율이 느껴집니다.

주 : 전 아버지를 보면서 늘 자상하게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아버지의 수첩에는 중보 기도가 늘 빼곡했어요. 길을 걸어 가시면서도 기도를 하셨으니까요. 어쩔 지금 남편이 선교사가 된 것도 아버지의 기도가 아 닌 가해요.

한 : 올 해 생각하시고 있는 선교 계획을 알려 주세요.

나 : 일본에서 BEE가 적용이 되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훗가이도의 오비히로하고 아사히카 와는 기초가 되어 있긴 한데 좀 더 시간을 갖고 활성화가 되고 모델이 되도록 만들 예정이예 요. 오비히로에서 일대일이 재생산되어 30명 정도 7개 교회에서 양육하고 있는데 그 중 다 케다 목사님은 3명째 양육하고 있어요. 1:1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시 간이 조금 더 걸리고 있어요. 올해 또 하나의 베이스를 일본에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신학교를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마치려 하고 있어요. 큰 그림을 그려보자 면 일본의 목회자, 리더십과 함께 세계 선교에 나가고 싶습니다. 돈이나 지식, 세계적인 평 판도 좋은 그들이 BEE를 배우고 선교 비전을 갖는다면 폭발적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 동안 러브소나타가 웅단 폭격을 해 냈고 연합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 사모님은 처음으로 사역에 첫 발을 디디시는데 어떤 각오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실 예정인지 소개해 주세요.

주 : BEE에서 FTS를 2월에 하고, TP를 6월말에 마치면 가을에 파송 예정입니다. 지금 계획은 남편과 함께 가서 1:1 양육을 하고, 또 온누리 교회 일본어 예배에 참석하는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결 혼>을 공부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일단은 남편 하는 사역에 순종할 생각이예요.

한 : 내일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인터뷰에 참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모도 아름다우시지만 두 분 '참 아름답 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시는 길이 꽃길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분을 통하여 일본에 복음의 든든한 뿌리가 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일문일답

• 어떤 선교사로 기억 되고 싶은가?

나 : 일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선교사 / 주 : 묘비에 '주미경 선교사'로 쓰일 수 있도록

• 서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 : '좋은 사람' / 주 : 가장 힘들 때 제일 먼저 기억나고, 나를 받아 주는 사람

•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나 : '좋은신 하나님' / 주 : '벅차다.' 듣기만 해도 벅차 오름이 느껴지는 분.

• 나에게 BEE란?

나 : 내비게이션. 인생 2막을 BEE를 통해서 전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지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언어와 방법인 데, 다행히 언어는 해결 되었고 양육은 BEE가 다 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

주 : 심화과정. 35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명예퇴직 후에 다른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

BEE 소식

- 4.22-23 온비아 수련회가 1박2일 있습니다.
- 5.5-6 All &One 이 예담원에서 1박2일 개최됩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